

'집콕' 설 연휴? 밀린 OTT 정주행이 답!

좀처럼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설 연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만 명이 넘는 등 확산세가 폭등하면서 고향에 내려가기조차 쉽지 않다. 일상에 지친 몸을 추스르고, 재충전할 각별한 기회라고 생각하자. 이럴 땐 '방콕'하면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답'이다. 영화부터 다큐멘터리, 드라마까지 없는 게 없다. 주인공들의 모험을 따라 세계 곳곳의 풍광을 화면으로나마 즐길 수 있다. 이에 대표 OTT 플랫폼(가나다 순)에서 '정주행'할 만한 콘텐츠를 엄선했다. 입맛에 따라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이정연 기자·유지혜 기자 annjoy@donga.com



#에놀라 홈즈

(주연 밀리 보비 브라운, 샘 클라플린, 헨리 카빌 등)



셜록 홈즈 여동생의 엄마 찾아 삼만리

"유명한 탐정이자 학자이고 화학자인 셜록 홈즈"의 여동생의 이야기이다.

영국판 엄마 찾아 삼만리 리 쥘 된다. 2020년 공개된 후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는 시리즈 중 하나로 '기묘한 이야기'에서 일레븐 역을 맡아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밀리 보비 브라운이 에놀라 홈즈를 연기했다.

초반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밀리 보비 브라운의 모습을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야기는 에놀라가 열여섯 살이 된 생일 아침, 특이한 선물을 남겨둔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엄마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에놀라는 셜록과 마이크로프트, 두 오빠의 속박과 구박을 견디지 못해 엄마를 찾아 나선다. 그 과정에서 겪은 귀족 실종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역사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건의 음모를 밝혀내기도 하며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해리포터 20주년 기념:리턴 투 호그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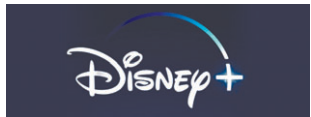
(주연 데니얼 래드클리프 등)



텍수염이 덩수룩한 해리포터 볼까

2001년 첫 번째 시리즈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개봉 2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콘텐츠다. 간만에 한자리에 모인 시리즈 주역들이 촬영 당시를 회상하며 숨겨진 촬영비화를 공개한다. 추억의 힘은 세월의 간극을 순식간에 메운다. 텍수염이 덩수룩한 해리포터 역의 데니얼 래드클리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론 역의 루퍼트 그린트, 푹 부러진 숙녀로 자란 헤르미온느 역의 에마 왓슨은 과거를 돌이키면서 금세 10대 소년·소녀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시리즈를 보고 자랐다면 주인공들과 함께 어린 시절의 향수에 젖어보자. 영화 명장면들을 보면서 가족들과 추억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갈 것이다. 시리즈를 잘 알지 못해도 좋다. 컴퓨터그래픽(CG)을 동원해 찍은 기발한 영화 촬영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이참에 '해리포터' 전 시리즈 몰아보기를 추천한다. 웨이브에서 영화 전편을 볼 수 있다.



#알버트 린의 잃어버린 도시들

(주연 알버트 린)



다큐가 심심하다는 편견은 버려!

숨겨진 다큐멘터리 '맛집'이다.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내셔널지오그래픽이 내놓은 기상천외한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뽐나게 들어차 있다. 2019년 '알버트 린의 잃어버린 도시들'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탐험가이자 공학자인 알버트 린이 영국 스톤헨지, 요르단 페트라 등 고대 유적지의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이다.

알버트 린은 다큐멘터리가 심심하다는 편견을 단박에 깨준다. 역사·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 유적지 정보를 풀어나면서 잠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2016년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지만, 의족을 한 채 험난한 오지를 누비면서 감동까지 자아낸다. 잉카문명이 꽃피운 페루 마추픽추 등 화면에 가득 담긴 광활한 자연의 풍광은 답답한 가슴을 뽐 뚫리게 해준다.



#언프레이밍드

(주연 정해인, 이동휘, 최희서 등)



배우들이 직접 메가폰을 잡는다면?

박정민, 손석구, 최희서, 이제훈 등 스크린을 주름잡는 배우들이 감독으로 나서 직접 이야기를 쓰고 연출한 단편영화를 묶었다.

어른의 세계만큼 치열한 초등학교생들의 반장선거를 담은 박정민의 '반장선거', 손석구가 연출해 친척의 결혼식장에 함께 가게 된 이모와 조카의 동행을 그린 '재방송', 싱글맘과 아홉 살 딸의 일상을 최희서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반디',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에 휩싸인 취업준비생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제훈의 연출작 '블루 해피니스' 등이다. 작품마다 메가폰을 잡은 감독의 개성이 담백 묻어난다. 영화를 보고나면 이들이 주연한 대표작들도 새롭게 보일 터다. 한 편당 길이가 30분 내외여서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정해인, 이동휘 등 동료들 지원 사격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선 배우들의 연기도 신선하다.



#블랙필즈

(주연 모니카 벨루치, 조이 도이치 등)



본능을 자극하는 40가지 문제작

시간 때우기로는 최적의 콘텐츠이다. 낮잠을 너무 자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보면 '딱'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금! 성인인증을 거친 후에 봐야 한다는 사실.

짧게는 1분에서 10분 이내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시리즈지만 드라마, 코미디, 스릴러, SF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에피소드마다 출연하는 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모니카 벨루치, 조이 도이치, 패트릭 J. 애덤스, 에릭 존슨 등을 비롯해 영국의 대표 배우 주드 로와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 '타이탄', '나우 유 씨 미'의 감독 루이스 리터러 등이 메가폰을 잡아 완성도를 높였다.

공개된 20가지 시리즈 가운데 모니카 벨루치가 출연한 '출입금지'는 호텔 톨의 'DO NOT DISTURB' 팻말 뒤면에 숨겨진 투숙객들의 사생활과 비밀을 파헤친다.



#해피 뉴 이어

(주연 한지민·김영광, 이동욱·원진아 등)



엮히고설킨 14인의 사랑 이야기

지난해 연말 극장에서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던니, 기세를 몰아 확장판으로 돌아왔다.

영화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호텔 '엠로스'를 찾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6개의 에피소드로 재탄생한 확장판은 각 30분 분량으로 영화 속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룬 것이 특징이다. 성탄절을 맞은 여러 커플의 이야기를 유니버스로 구성한 점이 할리우드 영화 '러브 액츄얼리'가 떠오른다. 호텔리어 한지민이 오랫동안 짝사랑한 김영광의 결혼 소식을 듣고 상심에 빠지는 모습이나, 강박증으로 고생하는 호텔 대표 이동욱이 하우스키퍼 원진아를 우연히 만나 호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 등이 추운 겨울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다. 호텔 안에서 서로 엮히고설켜 있는 14명의 '사랑'이 관련 포인트다.

연예

스포츠동아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13

연예뉴스 HOT 5

승리, 항소심에서 형량 절반으로 감형



승리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2)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오전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승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승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10월 항소했고, 승리의 전역은 보류됐다. 당초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비쳤다고 형량을 대폭 축소했다.

방시혁, 美 '2022 빌보드 파워 리스트' 선정



방시혁 의장

그룹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2022 빌보드 파워 리스트'에 포함됐다. 빌보드가 27일(한국시간) 공개한 '빌보드 파워 리스트'에 따르면 방시혁을 비롯해 하이브 아메리카 스쿠터 브라운과 윤석준 최고경영자(CEO)가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경영진 '톱 25인'에서 18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는 매년 세계 음악 산업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해 '파워 리스트'로 발표한다. 방시혁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건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하이브 아메리카 CEO 두 명과 함께 올랐다.

BTS '필름 아웃' '라이츠' 日 플래티넘 인증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발표한 '필름 아웃'(Film Out)과 '라이츠'(Lights)가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티넘'(누적 재생 수 1억회 이상) 인증을 받았다. 27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필름 아웃'은 지난해 6월 발매된 일본 베스트앨범 타이틀곡이고, '라이츠'는 2019년 7월 일본에서 공개된 노래다. 히트곡 '봄날'의 일본어 버전인 '스프링 데이'(Spring Day) 역시 골드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다이너마이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스테이 골드', 'DNA' 등 총 8곡이 플래티넘 인증을 받게 됐다.

황석정,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 교수로 임용



황석정

배우 황석정이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로 임용됐다. 백제예술대학교는 27일 "황석정이 1학기부터 연기 담당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방송영화연기, 예능 연기 워크숍 등의 강의를 맡는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연극·뮤지컬·방송 등의 엔터테인먼트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황석정 교수는 현장 실무 능력과 연기 교육 능력을 두루 갖춘 연기자로, 예술 교육에 대한 열정까지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기대가 무척 크다"고 말했다.

이승기,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1억원 기부



이승기

가수 이승기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7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소아·청소년 환자를 지원하고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앞서 2019년에도 재활병원 장애인후원회 의료 재할 후원금으로 1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척수 손상 환자 23명에게 휠체어, 의족·의수, 자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이승기는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꿈을 이뤄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